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혁신했는가?

– ‘신화의 정치’를 넘어서 –

이진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2024. 11.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혁신했는가?

- ‘신화의 정치’를 넘어서 -

이 진 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진의 의견이며,
민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요약	i
I. ‘회피의 정치’를 넘어서	1
1. 신우파의 부상	1
2. 회피의 신화	2
① 리버럴 원리주의의 신화	2
② 동원의 신화	5
③ 의회보루의 신화	6
II. 클린턴의 ‘제3의 길’	8
1. 뉴민주당	8
2. 잊혀진 중산층	11
3. 삼각화	12
III.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서	14
1. 정치 양극화	14
2. 양극화의 신화	16
① 동원의 신화	17
② 인구학의 신화	19
③ 언어의 신화	20
④ 처방약의 신화	22

목 차

IV.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24
1. 믿을 수 있는 변화	24
2. 아메리칸드림	26
3. 문제는 중산층	29
V. ‘새로운 회피의 정치’를 넘어서	32
1. 포퓰리즘의 위협	32
2. 새로운 회피의 신화	34
① 유색인의 신화	36
② 경제결정론의 신화	36
③ 진보우세의 신화	37
VI. 해리스의 ‘새로운 전진의 길’	39
1. 자유	39
2. 중산층	41
3. 기획의 경제	42

요 약

1. ‘회피의 정치’를 넘어서

○ 신우파의 부상

- 미국 민주당의 연속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뉴딜연합 해체. 민주당은 구태 정당이 되고, 공화당이 진취적 정당이 되면서 1968년에서 '88년 대선까지 6번의 대선에서 5번 신우파 공화당 압승

○ 회피의 신화

- 민주당 구좌파는 계속된 참패에도 불구하고 현실직시 거부. ‘회피의 신화’는 민주당을 적대적 공생의 그릇된 자기만족에 빠지도록 함으로써 자기혁신 봉쇄. 가장 심각한 폐해는 민주당의 진보적 정신 말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압하는 보수성
- 민주당의 전통적 이념, 리버럴리즘 교조에서 이탈해서 졌다는 ‘리버럴 원리주의의 신화(the myth of Liberal Fundamentalism)’
- 지지층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서 투표하지 않은 지지자를 투표하게 하면 이긴다는 ‘동원의 신화(the myth of Mobilization)’
- 의회를 계속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승리를 위해 혁신할 필요가 없다는 ‘의회보루의 신화(the myth of Congressional Bastion)’

2. 클린턴의 ‘제3의 길’

○ 뉴민주당

- 구좌파와 신우파의 ‘그릇된 선택’을 거부하고 제3의 길 추구, 리버럴 원리주의를 청산, 새로운 진보주의에 기초한 민주당 현대화

○ 잊혀진 중산층

- 부자적대 구좌파와 서민멸시 신우파의 양자택일 속에서 ‘잊혀진 중산층(forgotten middle class)’ 대변하는 중산층 대통령 자임

○ 삼각화(triangulation)

- 구좌파와 신우파를 양극으로 하는 일직선상의 중간이 아니라 정치구도를 삼각형으로 만들어 수준 높은 꼭짓점 위치를 장악

3.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서

○ 정치 양극화

- 남북전쟁 이후 최악의 국가분열 상황, ‘문화적 내전(cultural civil war)’으로 ‘두개의 미국’이 되었다고 진단될 정도로 정치 양극화 심화

○ 양극화의 신화

- 민주당 구좌파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초, 연속 패배했음에도 여전히 진영의 정치를 극단화하는 ‘양극화의 신화’ 신봉
- SNS 풀뿌리 활동가 넷루트(Netroot)를 활성화, 고정 지지층 최대 동원으로 민주당 승리가 가능하다는 ‘동원의 신화(the Myth of Mobilization)’
- 미국의 인구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변하기 때문에 굳이 혁신할 필요가 없다는 ‘인구학의 신화(the Myth of Demography)’
- 민주당의 문제는 가치와 어젠다가 아니라 레토릭과 프레임이라는 ‘언어의 신화(the Myth of Language)’
-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가 아니라 유리한 이슈에서 싸우는 이슈전환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처방약의 신화(the Myth of Prescription Drugs)’

4.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 믿을 수 있는 변화

- 국민의 정치불신만 심화시켰던 정권교체의 양극화 정치를 끝내는 정치교체 지향, 좌우 이분법을 넘어 실용적인 상식적 해법 추구

○ 아메리칸드림

- 오바마는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아메리칸드림의 실현으로 형상화, 일관되게 아메리칸드림에 기초한 대통합 주창

○ 문제는 중산층

- 중산층은 정치 양극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치·경제적 방파제.
‘중산층의 기회와 미래’ 메시지 전면화

5. ‘새로운 회피의 정치’를 넘어서

○ 포퓰리즘의 위협

- 기존 정치문법으로 해석할 수 없는 트럼프 포퓰리즘이 미국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위기감

○ 새로운 회피의 신화

- 1%차로 대선 승패가 결정되는 초박빙 정치구도 지속, 트럼프의 부활을 자초하는 ‘새로운 회피의 신화’가 부활
-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흑인처럼 히스패닉계를 비롯한 다른 유색인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혁신이 필요 없다는 ‘유색인의 신화(the myth of People of color)’
- 민주당이 우세한 진짜 이슈인 경제이슈가 민주당이 불리한 가짜 이슈인 문화이슈를 이긴다는 ‘경제결정론의 신화(the myth of economic determinism)’
-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political correctness)를 체화한 민주당 지지성향의 유권자가 다수가 되고 있다는 ‘진보우세의 신화(the myth of progressive ascendancy)’

6. 해리스의 ‘새로운 전진의 길’

○ 자유

- 트럼프 포퓰리즘에 대항하여 미국의 문화적 DNA인 자유를 기치로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을 넘어서는 대연합 추구

○ 중산층

- 중산층을 기준으로 ‘새로운 전진의 길(new way forward)’과 트럼프의 ‘낮은 후퇴의 길’을 구분, 상식과 몰상식의 선택으로 대선 규정

○ 기회의 경제

- 미국의 자유를 지키는 중산층 강국의 길을 실현할 비전으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 제안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혁신했는가?

- ‘신화의 정치’를 넘어서 -

이 진 복 수석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1 제1장 ‘회피의 정치’를 넘어서

1. 신우파의 부상¹⁾

- 미국 민주당의 연속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뉴딜연합(New Deal coalition)이 해체되고 신우파 공화당의 득세
 - 1968년과 '72년 대선에서 공화당 닉슨의 압승은 신보수주의 상징, 외교안보와 사회 이슈에서 민주당의 유약함, 이로 인해 뉴딜연합의 당연시된 핵심이었던 남부 백인이 공화당으로 대규모 개종
 - 1980년과 '84년 대선에서 레이건의 압승은 신보수주의와 함께 신자유주의 결합, 신우파 시대 개막. 민주당은 유약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무능한 세력으로 낙인, 뉴딜연합의 핵심 지지자였던 5대호 연안 러스트 벨트(Rust Belt) 백인 블루칼라 노동자의 공화당 대거지지
- 민주당의 불임정당화. 1968년 대선에서 1988년 대선까지 6번의 대선에서 5번 패배
 -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자물쇠(Republican lock)’. 1972년부터 '88년 대선까지 선거인단 결과를 근거로 각주의 정치적 성향을 판단하면 433 대 13으로 공화당의 압승
 - 대선에서 민주당의 연패는 역사적 대참패. 1972년 대선에서 닉슨은 선거인단 520 대 17로 압승. 1980년 레이건은 489 대 49, '84년 다시 525 대 13으로 압승

1) Al From, "Waking the Demss: How the New Democrat Movement Made the Party of Roosevelt, Truman, and Kennedy Relevant Again"(*The Blueprint*, 2006.2.9.), Paul R. Abramson,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1992 Elections*(Congressional Quarterly, 1994)

- 진보적 민주당은 구태 정당이 되고 보수적 공화당은 진취적 정당으로 정당 이미지 역전
 - 수구적 좌파와 진보적 우파라는 기존 통념에 반하는 기묘한 정치상황. 보수적 태도를 가진 구좌파와 진취적 태도를 가진 신우파
 - 좋건 나쁘건 모든 창의적 아이디어는 공화당에서 제안. 민주당의 진짜 문제는 그릇된 고정관념에 집착, 기성체제의 기득권을 옹호하는 뻔한 정당 이미지

2. 회피의 신화²⁾

- 민주당 구좌파는 계속된 참패에도 불구하고 현실직시 거부, 현실을 체계적으로 거부하는 ‘회피의 정치(the politics of evasion)’ 강행
 - “회피의 정치의 중심목적은 의미있는 변화를 회피하고, 정당이 여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어쨌든 부도덕하다고 확신했고, 다수당 내의 소수파가 되기보다 소수당 내의 다수파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했다. 이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연속 패배한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잘못된 데이터와 자료에 근거해 현실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분석이 아니라 신화를 제시했다.”
- 리버럴 원리주의의 신화(the myth of Liberal Fundamentalism), 동원의 신화(the myth of Mobilization), 의회보루의 신화(the myth of Congressional Bastion)라는 회피의 신화가 민주당의 민심외면 합리화
 - 회피의 신화는 민주당을 적대적 공생의 그릇된 자기만족에 빠지도록 함으로써 자기 혁신 봉쇄. 가장 심각한 폐해는 민주당의 진보적 정신을 말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억압하는 보수성

① 리버럴 원리주의의 신화

- ‘리버럴 원리주의’는 이념을 종교화, 정치를 신앙화하는 마인드. 국민 공감보다 존 재감을 어필하고 결과보다 선명성 강조
 - 민주당의 전통적 이념, 리버럴리즘을 신성시. 리버럴리즘 교조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믿음

2) William Galston and Elaine Ciulla Kamarck. "The Politics of Evasion, Democrats and the Presidency"(Progressive Policy Institute, 1989), William Galston and Elaine Ciulla Kamarck. "The Politics of Evasion Revisited, Which Road for Democrats in 1992?"(Progressive Policy Institute, 1991), E. J. Dionne, Jr. *Why Americans Hate Politics*(Simon & Schuster, 1991)

- 리버럴 원리주의는 ‘과거의 정치(the politics of the past)’ 추구. 전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채택하는 혁신 거부. 뻔한 변명, 뻔한 결과, 선거참패
 - 리버럴 원리주의자는 도그마로부터 벗어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 도덕적 분노로 반응. ‘우리는 두 개의 공화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상투어
- 본질적 문제는 뉴딜연합의 정치 이념인 리버럴리즘 자체가 원리주의화, 언제나 긍정적 의미를 가졌던 리버럴리즘이란 명칭이 국민적 반감 대상으로 전도

○ 리버럴 원리주의

- 리버럴리즘(Liberalism)은 1932년 루스벨트의 뉴딜 이후 아메리칸드림과 팍스 아메리카를 실현했던 혁신과 포용의 가치
 - 리버럴리즘의 메시지는 경제적 진보, 다수 미국인의 상향이동, 세계적 차원에서 반전체주의
 - 압도적 다수 국민의 정서와 이익에 부합, 30년간 유례없는 성과를 거두었던 집권당의 원리와 프로그램 제공. 대공황을 극복하고 거대한 중산층을 만들었고, 파시즘을 격퇴하고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단호하게 대응
- 1960년대 말 이후 리버럴리즘은 너무나 성공한 나머지 신성불가침의 원리주의로 타락, 국민과의 교감 상실
 - 원래 뉴딜 리버럴리즘의 정신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말한 ‘실험’과 ‘미래’를 본질로 하는 혁신과 포용. “대담하고 지속적인 실험, 과거가 아닌 우리의 미래를 위한 정부(bold, persistent experimentation, a government for our tomorrows, not our yesterday)”
 - 실험정신을 상실하고 활기를 잃으면서 리버럴리즘의 정수였던 혁신의 정치는 경직된 정부 프로그램으로 변질, 포용의 정치는 검증용 이데올로기로 변질
 - 국민의 시각에서 리버럴리즘은 생활인의 이익과 모순되는 세금과 지출 정책, 자활보다 의존을 촉진하는 복지정책, 범죄자에 대해 유약하고 희생자에게는 냉담한 치안정책, 해외에서 미국의 가치와 국익에 대해 애매모호한 외교정책, 주류의 도덕적, 문화적 가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와 동일시

- 불충분한 리버럴리즘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적 리버럴리즘의 과도함이 문제. 민주당 후보가 ‘너무 리버럴하다’는 인식은 공화당에게 유리
 -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예상했던 1988년 대선에서 듀카키스는 자신을 ‘비이성적 리버럴’로 공격하는 공화당에 맞서 ‘자랑스러운 리버럴(proud liberal)’ 선언. 이는 유권자의 정서에 맞서는 역주행이었고 결국 대선참패로 직결
- 리버럴 원리주의는 중산층과의 교감 상실.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연합, 민주당의 연속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다수와 뉴딜연합 해체
 - 리버럴리즘의 전성기, 뉴딜연합은 백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중산층과 흑인을 핵심으로 하는 서민의 연합
 - 리버럴 원리주의에 사로잡혀 민주당은 보통사람의 생활감정에 반하는 극단적 비주류 시민단체로 낙인, 대선 연전연패
 - 공화당은 민주당을 뉴욕타임즈나 읽는 백인 리무진 리버럴(limousine liberals), 일안하는 범죄자 복지생활 흑인, 헐리우드와 동성애자와 홈리스와 피어싱 문신층 등 문화적 비주류의 ‘그들만의 리그’로 낙인
 - 민주당은 애국심이 부족하고, 안보에 유약하고, 범죄자와 소수자에 부드럽고, 노동·가치·가족에 무관심하고 세금에 미쳐있는 정당이라는 인상
- 시끄러운 소수, 극성 활동가의 정치파괴와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혐오가 상호 강화, 민주당의 리버럴 원리주의 강화와 대통령후보 선출과정의 국민참여 하락의 악순환 고착화
 - 민주당 극단화, 당의 대중적 인기하락, 예비선거의 지지자 참여 하락, 다시 리버럴 원리주의를 강화하는 극단적 대선후보 선출, 본선거인 대선참패가 반복되는 축소지향 정치과정
 - 리버럴 원리주의 활동가가 제도적 당(institutional party)을 지배하면 할수록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 중산층 이탈 가속화. 역으로 민주당 지지자의 참여가 저조할수록 극성 활동가의 제도권 진출 활성화

② 동원의 신화

○ 아이디어가 중요하다³⁾

- “1970년대와 ’80년대에 우리는 진정 아이디어의 싸움에서 졌다. 1980년 대선에서 레이건이 승리했을 때, 공화당은 아이디어 이니셔티브를 장악했다. 그들은 말할 것이 있었고, 우리는 말할 것이 없었다. 당으로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의 지지자들은 줄어들고 있었다.”
- “국민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는 여전히 당의 오래된 가치를 고수하는 한편, 당을 국민과 다시 연결시키려고 했다.”

○ 민주당은 국민이 아니라 지지층, 그냥 지지층이 아니라 열성 지지층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면 이긴다는 꾀대 마인드

- 현재 투표하지 않은 지지자들이 투표하면 대선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대중적 인식을 혁신할 필요는 없다는 믿음
-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공감대 아니라 시끄러운 소수, 극성 지지층의 활성화가 중요
- 투표율이 높으면 이긴다는 ‘일반적 동원(general mobilization)’과 지지층의 투표율이 중요하다는 ‘선택적 동원(selective mobilization)’의 두 가지 버전

○ 더 높은 투표율이 민주당 승리의 해법이라는 일반적 동원의 신화는 뉴딜연합 전성기에나 어울리는 철지난 고정관념

- 이는 사실에 반함. 투표율이 높을수록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향. 투표율이 낮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고 투표율이 높은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
- 일반적 동원의 신화가 그릇된 이유는 첫째,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의 변화, 둘째, 주변 유권자(peripheral voters)의 변화, 셋째, 중산층의 변화
- 뉴딜연합이 해체되면서 정당일체감에서 민주당의 우위는 사라졌음. 뉴딜연합의 중심, 민주당의 ‘사라지고 있는 중도’(disappearing middle). 소득에서 중도인 중산층, 교육에서 중도인 고졸자 집단에서 민주당 우위 상실
- 간헐적으로 투표하는 주변 유권자는 과거에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었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상태

3) Jules Witcover. *Party of the People: A History of the Democrats*(Random House, 2003)

- 공화당은 더 이상 부자의 정당이 아니라 일하는 중산층(working middle class)의 정당이라는 인상.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일하는 중산층이 '레이건 민주당원(Reagan Democrat)'으로 변신, 공화당지지

○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 더 많이 투표하면 이긴다는 선택적 동원의 신화는 작용과 반작용을 모르는 하나마나한 이야기

- 민주당 지지 성향인 흑인과 여성의 투표율을 높이면 민주당이 승리한다는 속 편한 생각은 선거는 경쟁 상대가 있다는 것을 망각. 선거는 플러스만 모으는 '총(the gross)'의 게임이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합계하는 '순(the net)'의 게임
- 남부에서 흑인 유권자에 집중된 동원 전략은 공화당의 백인 유권자 역동원(counter-mobilization) 전략으로 상쇄. 남부의 다수인 백인 유권자의 이탈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남부가 공화당의 아성이 되는 것을 자초
- 여성에 초점을 맞춰 남성 대비 여성의 투표율을 높이자는 젠더 격차 확대 주장은 통념과 달리 민주당에 불리. 젠더 격차는 여성이 민주당을 더 지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더 많이 철회했기 때문

○ 민주당이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그동안 민주당이 상실했던 유권자와 지역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혁신에 나서야

- 민주당의 지지기반 상실을 당연시하고 악화시키는 흑백 또는 남녀 양자택일이 아니라 지지기반을 확장하는 병행전략만이 대선승리 가능

③ 의회보루의 신화

○ '대선은 중요하지 않다.' 민주당은 대선승리를 위해 혁신할 필요 없다는 자포자기 마인드

- 민주당은 대통령직만 제외하고 나머지 선출직, 특히 연방 의회에서 여전히 다수당이기에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
- 민주당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속편한 생각

○ 현직자 효과로 인해 급격한 정치 재편성이 지연되고 있지만 정당일체감의 변화는 ‘점진적 낙수 재편성(slow-motion, trickle-down realignment)’ 진행 증명

○ ‘점진적 낙수 정치 재편성’

- 정치 재편성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믿음은 대공황의 파국적 사건의 여파로 대통령, 상·하 양원, 주와 지방에서 동시에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던 1932년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 모델에 근거
- 설령 재편성이 진행 중이라도 1968년 이후의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경향을 분할 재편성(split-level realignment)이라고 개념화하면서 의회를 민주당이 계속 장악할 것으로 가정. 이는 민주당의 대선패배를 당연시하는 패배주의적 현실 안주
- 대선에서 공화당의 우세는 현직자 효과로 인해 전면적 정치 재편성이 지연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연방의회, 주, 지방 단위에서 민주당의 우위를 잠식할 것이라는 ‘점진적 낙수 정치 재편성’ 진행
 - 현직이 정당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 발휘. 가령, 1988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대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하원 현직의원의 98%가 재선 성공
 - 정치 재편성이 급격했던 대선과 달리 연방의회, 주, 지방선거에서 재편성은 점진적으로 진행. 결국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상하양원 압승을 가져온 ‘공화당 혁명’이 증명

○ 투표행태의 핵심적 선행지표는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특히 청년층의 정당일체감과 청년 정치지망생의 변화는 이대로 가면 공화당 우세 정치 재편성 임박 예고

- 청년층에서 민주당 우위가 사라지고 공화당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음. 민주당의 강세가 고령자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재편성은 무한정 연기될 수 없음
- 대학생 정치 활동가 집단에서 공화당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남부지역의 젊은 선출직 공무원이 민주당을 대규모로 탈당해 공화당에 입당. 결국 민주당의 호남이었던 남부가 공화당의 영남으로 전변

2

클린턴의 '제3의 길'

○ '제3의 길' 기본원칙

① 강한(Strong)

- 양대 진영이 격돌할 때, 중도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중도의 지지를 얻는 진영이 승리. 제3의 길은 검증된 필승전략(winning idea)

② 창의적(Creative)

- 국민의 상식에 근거해 시대교체에 대응, 새로운 해법을 창안(old value, new way), 시대에 적응하는 '시중(時中)노선'

③ 수준 높은(Better)

- 제3의 길은 좌우 일직선상의 '중간'이 아니라 좌우 양극을 밑면으로 하는 삼각형 구도에서 꼭짓점 위치. 따라서 제3의 길은 좌우정책과 '다르고' 새로운 시대적 관점에서 좌우정책보다 '수준 높은' 정책대안을 창안

④ 더불어(common)

- 중산층과 서민의 지극히 당연한 잘 살려는 '열망'을 '욕망'으로 경멸하는 시끄러운 소수의 관념적 진보노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중산층의 꿈'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공동열망의 정치(the politics of common aspiration)' 실천

⑤ 영리한(smart)

- 진보와 보수의 기성품이 아니라 자신만의 정치적 스마트폰 앱을 능동적으로 조합하는 '스마트 유권자' 즉, 일관된 보수와 진보가 아닌 다수의 '패치워크 유권자'의 가치와 이익을 대변

1. 뉴민주당⁴⁾

- 클린턴은 회피의 정치를 강행하면서 리버럴 원리주의를 고수하는 '올드민주당'을 청산하고, 당의 영혼을 잃지 않으면서 민주당을 현대화하는 '뉴민주당'의 길 개척

4) Al From and Will Marshall. "Building the Next Democratic Majority"(The Blueprint, 1998.9.1.)

- 올드민주당은 반사이익의 길. 민주당을 완전히 우연에 의존하게 만들고, 국가적으로 나쁜 소식, 가령 경제불황, 전쟁실패, 헌법위반 등을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전략
- 뉴민주당은 당의 약점을 직접 해결, 민주당의 기본 공약을 지속가능한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혁신,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으로 일신 유일신하는 적극적 전략

○ 클린턴은 구좌파와 신우파의 ‘그릇된 선택’을 거부하고 ‘제3의 길’의 ‘새로운 선택’을 추구하는 ‘뉴민주당원’ 자임

- “올드민주당이 했던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민주당의 신세대” 또는 국민과 공감하는 “다른 종류의 민주당원(a different kind of democrat)” 자임
- 클린턴은 1992년 대선강령에서 명시적으로 ‘회피의 정치’를 비판하고 구좌파와 신우파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을 최초로 제시
- 이데올로기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민주당스러운 ‘양자택일(either/or)’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광범하게 단결시켰던 상식에 근거한 민주당다운 ‘통합(both/and)’ 정치 추구

○ ‘제3의 길’⁵⁾

- ‘제3의 길’을 기치로 내건 1992년 미국 민주당 클린턴의 승리 이후 ‘제3의 길’은 진보의 현대화, 새로운 진보의 글로벌 브랜드가 되었음. 각국의 중도진보정당은 자신이 처한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혁신 추구
 -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는 ‘제3의 길’, ‘뉴노동당’, 독일 사민당의 슈뢰더는 ‘신중도(Die Neue Mitte)’, 프랑스 사회당의 조스팽은 ‘다원적 좌파(Plural Left)’, 네덜란드 노동당은 ‘보라색 연합(Purple Coalition)’ 등으로 브랜딩
 - 1990년대 거의 모든 구미국가에서 중도진보정당 집권 성공, 신우파 시대 종식. 1998년 전세계의 현대화된 중도진보정당이 모여 ‘진보 거버넌스 회의(Progressive Governance Conference)’ 구성.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로 알려졌고 진보 거버넌스 회의에 초청 받았음. 이어 노무현 정부도 초청받아 참석
- 클린턴은 민주당 대선강령에서 1992년 대선을 신우파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와 구좌파의 “큰 정부”를 넘어서는 “제3의 길”의 “혁명”으로 규정
 - “1992년의 혁명은 어려운 선택을 직시하는 것이다. 우회와 회피의 정치(politics of diversion and evasion), 그릇된 선택과 선택 없는 정치에 대해 미국은 계속 절망하고 있다.”

- “우리는 지난 1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부(do-nothing government)와 번영을 위해 세금과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큰 정부(big government) 이론, 모두를 거부한다. 그 대신에 우리는 제3의 길(a third way)을 제시한다.”⁶⁾

○ ‘뉴민주당 운동(New Democratic Movement)’

- 클린턴은 제3의 길의 ‘뉴민주당’을 민주당의 가치를 배신하는 청산 운동이 아니라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를 새로운 시대와 보조를 맞춰 정책과 프로그램을 혁신하는 현대화 운동으로 정의
- “뉴민주당원은 미국정치의 진보적 전통의 현대화론자이다. 우리는 민주당을 언제나 이끌었던 전통적 가치를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서 이 가치를 촉진하는 최선의 수단이 변화하는 시대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우리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뉴민주당 정책은 진부한 좌우 논쟁을 초월하고, 진보적 아이디어, 주류 가치(mainstream values),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는 혁신적 해법에 근거한 통치의 제3의 길(The Third Way)을 정의한다.”⁷⁾

○ 다섯 가지 측면에서 클린턴의 제3의 길 대선강령은 이전 4반세기의 민주당 강령과 근본적으로 달랐음

- 첫째, 제3의 길 강령의 중심은 분배가 아니라 경제성장
- 둘째, 제3의 길 강령이 제안했던 정책은 미국의 주류 가치, 즉 개인의 책임, 개인의 자유, 신앙, 관용, 가족, 근로에 근거
- 셋째, 제3의 길 강령은 새로운 호혜의 정신 강조. 활동적 정부와 함께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국가와 공동체에 뭔가 돌려주어야 한다고 촉구
- 넷째, 제3의 길 강령은 정치적 양극단에서 나타난 신고립주의 거부. 민주당이 세계에서 미국의 국익을 방어하고 민주적 가치를 촉진하는 국제주의적 외교정책을 공약
- 마지막으로 정부를 더 분권적이고 더 유연하고 더 책임있게 만들고 공공서비스에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워싱턴의 견고한 관료제와 협소한 압력단체로부터 보통사람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정부를 혁신할 것을 촉구

5) Anthony Giddens,(ed) *The Global Third Way Debate*(Polity, 2001)

6) "1992 Democratic Party Platform"(Democratic Party, 1992.7.13.)

7) "About the New Democratic Movement"(Democratic Leadership Council, 1998.6.1.)

- 클린턴은 정치적으로 너무 오염되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었던 ‘리버럴리즘’을 폐기하고, ‘진보주의(progressivism)’로 업그레이드, 민주당의 이념을 혁신
 - 1996년 <새로운 진보선언 : 정보화시대의 정치철학> 발표,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뉴딜 리버럴리즘을 낡은 진보주의로 규정하고, 제3의 길을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진보로 공식화
 - “한 세기 전의 진보주의자처럼 우리는 단순한 조직된 이익집단의 충돌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근거한 새로운 정치를 주도하려 한다. 이들과 함께 우리는 사라지고 있는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를 장악하는 새로운 어젠다를 기안하려 한다.”⁸⁾

2. 잊혀진 중산층⁹⁾

- 클린턴은 공화당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참패하고 있는 원인을 ‘잊혀진 중산층(forgotten middle class)’의 문제로 진단
 - 아메리칸드림을 쫓아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은 서민을 멸시하는 신우파와 부자를 적대하는 구좌파의 그릇된 진영대결 속에서 정치적 의제에서 잊혀졌음
 - 특히 민주당은 부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중산층을 부자로 적대하고, 중산층이 되기를 열망하는 서민의 중산층의 꿈을 욕망으로 경멸
 - 뉴딜연합의 중심, 민주당의 자연스러운 지지자였던 중산층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 상실, 공화당으로 이탈하면서 ‘레이건 민주당원’으로 변신, 연전연패 자초
- ‘노동’과 ‘공정한 보상’을 중시하는 ‘온건’한 ‘중산층 의식(Middle class consciousness)’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비전을 재구성해야
 - 일하는 중산층은 노동을 존중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극단에 한계를 설정하는 가치가 실종됐다고 한탄
 - 중산층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세금감면, 불로소득, 복지 등과 같은 요행과 특혜를 바라는 부자와 서민 사이에서 고통받고 잊혀졌다고 느낌
 - 중산층의 꿈을 중심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연합. 이는 서민을 포기하는 우경화가 아니라 실생활의 상식 체화. 서민 또한 중산층처럼 일하고 있고 잘 살고 싶은 상향이동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

8) *The New Progressive Declaration: A Political Philosophy for the Information Age* (Progressive Foundation, 1996.6.)

9) Stanley B. Greenberg. *Middle Class Dreams*(Yale University Press, 1996), Stanley B. Greenberg. "Reconstructing a Democratic Vision"(*The American Prospect*, 1990.3.21.), Stanley B. Greenberg. "From Crisis to Working Majority"(*The American Prospect*, 1991.9.21.)

- 클린턴은 중산층을 우리와 같은 보통사람으로 규정, 잊혀진 중산층을 대변하는 ‘중산층 대통령’ 다짐. 이후 미국 정치에서 중산층 복권
 - “일을 하여 세금을 내고 자녀를 양육하며, 규칙을 지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이름으로 그리고 열심히 일 해왔지만 잊혀진 중산층 여러분의 이름으로 저는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받아들입니다. 오늘의 저는 중산층에 속해있는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 잊혀진 중산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은 투자와 혁신을 통한 계층상승의 사다리 복원
 - “미래에 더 많이 투자하고 정부를 혁명적으로 혁신하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혀진 중산층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빈곤을 줄이고 서민이 중산층이 되는 사다리를 다시 만드는 길입니다. 이것이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 이유입니다.”
- 클린턴은 계층상승의 사다리 복원을 위한 경제성장을 자신의 신념으로 표현
 - “저는 기업을 믿습니다. 저는 시장을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자리 프로그램은 경제성장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3. 삼각화¹⁰⁾

- 제3의 길의 ‘삼각화(triangulation)’는 캠페인, 어젠다, 가치의 삼각화로 구체화
 - 삼각화는 구좌파와 신우파를 양극으로 하는 일직선상의 단순한 중간이 아니라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최선의 요소를 융합한 대안을 발전시켜 정치구도를 삼각형으로 만듦으로써 더 높은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꼭짓점을 차지하는 것
- 캠페인의 삼각화는 다수의 신중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중도진보 정치전략. 전통적 지지층을 공고히 하면서 신중도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자연스러운 집권당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진보연합(new progressive coalition)’ 구성
 - 신중도 유권자는 정당과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무당파와 온건파이고, 계층적으로는 중산층, 세대 측면에서는 청년세대, 교육수준으로는 새로운 학습계층

10) Dick Morris, *Power Plays: Win or Lose-How History's Great Political Leaders Play the Game* (Regan Books, 2002), Dick Morris, *Behind the Oval Office*(Renaissance Books, 1999)

- 클린턴의 대선 캠페인은 전통적 지지층의 지지를 공고화하는 복지 메시지, ‘의료보험을 잊지말라(Don’t forget health care)’와 신중도 유권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경제 메시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를 밑변으로 ‘변화냐 현상유지냐(Change vs. more of the same)’의 꼭짓점 선택 제시, 변화의 희망을 실현하는 새로운 진보연합 구성

○ **어젠다의 삼각화는 엄하지만 유능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신우파와 따뜻하지만 무능한 엄마의 느낌을 주는 좌파의 양자택일을 거부하고 따뜻하면서 동시에 유능한 정당으로 혁신하는 어젠다 기안**

- 유권자는 복지와 교육 등, 엄마 이슈와 경제와 안보 등, 아버지 이슈 간에 양자택일을 원하지 않음. 민주당의 강점인 엄마 이슈에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이슈에서 공화당의 강세를 무력화시켜야
- 아버지 이슈는 본성상 엄하지만 돈벌어오는 ‘수권 이슈’, 엄마 이슈는 자애롭게 보살피지만 안살림만하는 ‘견제 이슈’. 이 구도에서는 의회승리는 가능하지만 수권 리더십을 선택하는 대선에서 승리 불가능. 유능한 경제정당, 든든한 안보정당으로 혁신할 때만이 대선승리 가능

○ **가치의 삼각화는 리버럴리즘의 이념이 아니라 미국의 주류 가치, 국민의 상식을 강조. 기회, 책임, 공동체를 새로운 진보주의의 가치로 정식화**

- 결과가 아니라 ‘기회’의 균등, 권리와 함께 동반하는 ‘책임’ 강조, ‘공동체’를 기회와 책임의 균형을 통한 꼭짓점으로 제시
- 모두를 위한 기회는 무엇보다 경제성장과 상향이동의 가치, 모두의 책임은 페어플레이와 근로의 가치, 모두를 위한 공동체는 관용과 상식의 가치
- 기회, 책임, 공동체는 공허한 미사여구가 아니라 민주당의 새로운 해법을 창안하는 가이드 역할
- 행위자의 책임은 무시하고 구조적 기회를 최대한 확장하는 좌파와 구조적 기회는 외면하고 행위자의 책임만 묻는 우파의 양자택일 거부. 구조적 기회와 행위자의 책임을 공동체의 포용과 혁신으로 최적화하는 해법 기안

3

‘양극화의 정치’를 넘어서

1. 정치 양극화¹¹⁾

-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되었던 2000년 대선과 2004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연이은 패배
 - 임기말 지지도 66%,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많은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친 클린턴 대통령의 부통령, 고어의 박빙 대선 석패. 유권자 득표에서는 이겼지만 선거인단에서 패배
 - W. 부시 대통령의 온갖 실정, 특히 9.11테러이후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역시 케리 후보의 패배
- 남북전쟁(Civil War)이후 최악의 국가분열 상황, ‘문화적 내전(cultural civil war)’으로 ‘두 개의 미국’이 되었다고 진단될 정도로 정치 양극화(political polarization) 심화, 민주당은 전임자의 성과이든, 상대당의 실정이든 반사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
 - 클린턴 대통령은 일본과 독일의 추적을 뿌리치고 팩스 아메리카나의 부활을 이끌면서 국민적 지지를 얻었지만 르윈스키 스캔들과 이어진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인해 미국의 분열 심화
 - W. 부시 대통령은 종교(God), 총기(Gun), 배짱(Gut)을 둘러싼 3G ‘핫버튼 이슈(hot button issue)’를 통해 타협을 불가능하게 하는 분노의 정치 강행. 낙태, 동성애, 총기규제, 애국심 등의 가치 이슈가 미국을 두 개의 국민으로 분열
 - 이라크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이 국민통합이 아니라 ‘매국노’ 민주당과 ‘전쟁광’ 공화당으로 상호 매도, 미국에서는 유례없이 국가안보 이슈가 국론분열 가속화

11) Stanley B. Greenberg. *The Two Americas: Our Current Political Deadlock and How to Break It*(Thomas Dunne Books, 2004), Morris P. Fiorina, Samuel J. Abrams and Jeremy C. Pope. *Culture War? The Myth of a Polarized America*(Longman, 2010), Morris P. Fiorina. *Unstable Majority: Polarization, Party Sorting, and Political Stalemate*(Hoover Institution Press, 2017)

- 정치 양극화는 정치계급과 유권자 간의 수직적 양극화와 양당 지지자 간의 수평적 양극화가 상호교차, 상호강화되면서 심화
 - 정치 양극화는 ‘정치협오와 정치열광의 악순환’. 수직적 정치 양극화는 다수 온건 무당파 유권자의 정치협오 강화. 수평적 정치 양극화는 소수 극단 진영 지지자의 정치열광 심화
 - 다수 온건 무당파 유권자의 정치협오와 소수 극단 진영 지지자의 정치열광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당의 정치 엘리트 극단화. 극성 지지자가 정당 참여자의 다수가 되면서 다시 정당 양극화 강화
- 수직적 정치 양극화는 민주주의에서 대의 기능 파괴. 유권자 다수는 여전히 온건 무당파이지만 정치인을 비롯한 언론인, 학자, 방송인, 셀럽 등 정치계급 엘리트는 양대 진영으로 극단화
 - 유권자의 이데올로기 일체감은 1970년대 이후 온건 50%, 보수 30%, 진보 20% 정도로 변화가 없지만 정치계급 엘리트에서 온건파 실종
 - 유권자의 정당 일체감에서 1970년대 이후 약한 정당 지지자와 무당파가 절대다수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음. 5~10%가 정당 활동가, 25~30%가 강한 정당 지지자, 35~40%가 약한 정당 지지자, 25% 정도가 무당파. 그러나 소수의 활동가가 당을 장악, 타협하는 정당 엘리트를 변절자로 단죄, 정치의 종교화 강행
- 수평적 정치 양극화는 유권자가 이념적으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대한 분류(great sorting-out)’ 진행. 전체 유권자의 이념 구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정당의 이념 구성은 일색화
 - 정치 양극화는 유권자 대중의 양극화(popular polarization)가 아니라 정당의 양극화(partisan polarization)
 - 유권자의 정치적 위치의 양극화(polarization of people's positions)가 아니라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polarization of people's choices)의 양극화
 - 정당의 후보 양극화(candidate polarization) 때문에 유권자의 정치적 위치는 변화가 없지만 자신이 원하는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양극화
 - 정당의 양극화로 인해 자칭 진보적 유권자는 민주당에 더 많이 투표하고, 자칭 보수적 유권자는 공화당에 더 많이 투표
 - 정당이 이념적으로 일색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끼리끼리 모여 사는 이념적 일색화 진행. 대선, 연방의회선거, 주 및 카운티 단위 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경합 지역구가 줄어들고 있음

○ 정치 양극화

- “공화당 지지주는 더욱 공화당을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주는 더욱 민주당을 지지한다(the Red states have gotten redder and the Blue states bluer).”
- 주들이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대분류되면서 경합주들(swing states)이 줄어들고 있음
- 주 간의 차이는 커지고 전국평균 근처의 주는 줄어들고 있음. 1988년 아버지 부시는 자신의 전국 평균 득표율에서 5% 이상 이긴 주는 15곳, 26개 주는 전국 평균 5% 이내. 2004년 대선에서 아들 부시는 전국 평균 득표율에서 5% 이상 이긴 주는 21곳, 단지 19개 주가 5% 이내
- 주들의 분류 현상은 극단적 몇몇 주들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모든 주들이 전국 결과로부터 편차가 증가하고 있음 1988년 대선에서 평균 주는 전국 결과로부터 4.7% 편차, 중위 주는 4.6% 편차. 2004년 대선에서 평균 주는 전국 결과로부터 7.2% 편차, 중위 주는 6.1% 편차
- 주만이 아니라 카운티 차원에서도 정치 양극화 진행. 2004년 대선에서 전국 카운티의 3/5이 특정 대선후보에게 60% 이상 절대다수 지지를 보냈는데, 상대적으로 클린턴이 크게 이겼던 1996년 대선에서는 2/5만이 그랬음

2. 양극화의 신화를 넘어서¹²⁾

○ 민주당 구좌파는 정치 양극화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초, 연속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의 신화 신봉. 진영의 정치를 극단화는 양극화 정치(the politics of polarization) 강행

- “민주당은 1980년대 말 회피의 정치 시기처럼 국가가 직면한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현대화하고 정치 전략과 전술을 수정하는 과제에 도전받고 있다. 민주당의 조건에 대한 신화들의 효과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혁신의 원동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12) William Galston and Elaine Ciulla Kamarck. "The Politics of Polarization: A Path Back to Power"(The Third Way. 2005.10.1.)

○ ‘동원의 신화(the Myth of Mobilization)’, ‘인구학의 신화(the Myth of Demography)’, ‘언어의 신화(the Myth of Language)’, ‘처방약의 신화(the Myth of Prescription Drugs)’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부정할 뿐 아니라 민주당만이 아니라 국가를 위협하는 양극화 정치 자체를 강화

- ‘동원의 신화’는 고정 지지층 최대 동원으로 민주당 승리가 가능하다는 믿음. ‘인구학의 신화’는 미래의 인구 구성이 민주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동원의 신화’가 가능한 배경. 말을 잘하면 된다는 ‘언어의 신화’와 건강보험 등, 국내 이슈에 집중하자는 ‘처방약의 신화’는 ‘동원의 신화’를 실현하기 위한 무기

① 동원의 신화

○ ‘닥치고 돌격’ 마인드의 동원의 신화는 회피의 신화에도 있는 열성 팬덤 마인드. ‘민주당 지지자를 투표장에 데리고 오면 승리한다.’

- 양극화의 신화는 회피의 신화 버전을 업그레이드. 우유부단하고 타협적인 민주당 기성체제가 당의 선명성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무브온(MoveOn.org) 등, 열정적인 SNS 풀뿌리 활동가 넷루트(Netroot)가 민주당 리더십을 장악해서 지지층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

○ 민주당 지지자의 활성화는 선거승리의 대전제. 그러나 민주당의 열성적 고정 지지층(active base)은 승리의 필요조건 일뿐 충분조건은 아님

- 공화당의 보수적 활동가 고정 지지층은 민주당의 진보적 고정 지지층보다 50% 이상 더 큼. 1970년대 이래 진보 대 보수간 양대 진영의 정면으로 맞붙는 총력전에서 진보는 이긴 적이 없음
- 민주당의 대중매체 우위는 사라졌음. 고급지와 블로그의 활자 매체 중심으로 활동하는 ‘설명충’ 엘리트 민주당에 대항하여 ‘렉카충’ 공화당은 라디오와 케이블 방송 토크쇼와 유튜브에서 직설적인 막말로 매체 우위를 차지한지 오래
-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지상전을 잘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 2000년 대선과 2004년 대선에서 공화당은 최초로 마이크로 타기팅(Micro Targeting) 기법을 정치에 전면적으로 활용, 민주당을 넘어서는 진영 동원력 증명
-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인 흑인과 여성의 동원은 한계 상황. 흑인의 투표율은 백인과 근접해있고, 여성의 투표율은 남성을 넘어서 상황. 오히려 흑인과 여성에 초점을 맞춘 과도한 동원전략으로 말미암아 민주당의 백인과 남성 지지층이 떠나는 상황 초래

○ 민주당은 진보색이 짙어지고 공화당은 보수색이 짙어지는 정치 양극화 심화 상황에서 동원의 신화는 민주당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 자초

- 1970년대 이래로 보수가 진보보다 3 대 2의 비율로 많은 유권자 구성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열성 지지자에 영합, 진보색을 강화하는 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
- 더욱이 뉴딜연합이 해체되면서 정당일체감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 상실, 공화당과 비슷한 상황. 동원의 신화가 강행될수록 보수적 민주당원만이 아니라 온건한 민주당원의 이탈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
- 보수 유권자 대비 진보 유권자가 적은 상황, 보수 유권자가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온건 무당파 유권자, 부동층 유권자(swing voters)에서 최소 65% 이상 얻지 않고서는 대선승리 불가능

○ 동원의 신화는 민주당의 자충수

- 1970년대 이래 공화당의 정치적 성공, 특히 2000년과 2004년 대선에서 W. 부시의 승리는 미국정치에서 보수적 유권자가 증가했다는 착각 초래
- 그러나 유권자의 이념적 구성은 불변. 온건 5, 보수 3, 진보 2의 이데올로기 일치감은 불변. 평균적으로 유권자의 47%가 온건, 33%가 보수, 20%가 진보
- 문제는 정치체급의 정당 양극화로 인한 유권자의 대분류. 정당의 이데올로기적 일색화 진행, 소속정당과 이데올로기가 투표 행동의 더 큰 예측요인이 되고 있음
- 카터가 승리했던 1976년 대선과 케리가 패배했던 2004년 대선 사이에 진보 유권자가 공화당 후보에 투표하거나 보수 유권자가 민주당 후보에 투표할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었음
- 보수 유권자가 더 많고 보수 유권자를 공화당이 민주당만큼 동원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진보 유권자를 많이 동원하더라도 온건 무당파 유권자, 부동층에서 크게 이기지 못하면 패배
- 케리는 2004년 대선에서 사실상 어떤 민주당 대선후보보다 더 많이 민주당 지지자 동원, 진보 유권자와 등록 민주당원에서 최대 득표
- 카터는 1976년 대선에서 진보 유권자의 76%만을 얻고 대통령이 되었지만 케리는 85%를 얻고서도 패배
- 카터는 등록 민주당원의 77%를 얻고 이겼지만 케리는 89%를 얻었지만 졌음

○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부동층은 사라졌고 고정지지층 동원이 현대 정치의 모든 것이라는 믿음은 현실에 근거하지 않음

- 정치 양극화가 강화될수록 공화당은 유리하기 때문에 동원의 신화는 공화당한테는 신화가 아니라 승리전략일 수 있지만 민주당은 현실의 패배를 위로하는 신화
- 민주당의 대선 득표율 차이는 고정 지지층의 투표 여부가 아니라 온건 무당파 유권자, 부동층의 지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었음
- 대선 승리는 고정 지지층을 활성화하면서 부동층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적어도 부동층의 민주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다수파 연합을 만드는 동원과 확장의 병행 전략 전제

② 인구학의 신화

○ 미국 인구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변화 경향은 앞으로 수십년간 민주당 다수파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

- 결국 유권자 구성이 민주당에게 유리해지기 때문에 당장의 선거 패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속편한 생각. 오히려 현재의 민주당을 바꾸는 것이 마이너스라는 혁신반대 마인드

○ 21세기 유권자 집단은 인구학적으로 점차 다양해지면서 리버럴한 민주당 친화적인 구성으로 변화한다는 믿음

- 히스패닉계 유권자가 급증하면서 인종의 구성이 변화, 백인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시대가 종식되면서 백인 중심 공화당의 정치적 우위는 끝났고 무지개연합을 추구하는 민주당의 연속집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
- 지식기반경제의 정보화가 가속화되면서 리버럴 성향을 가진 탈산업 전문가 계급, 대도시 지식 노동자가 급증. 고학력 고소득층 집단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이 더욱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
- 이와 함께 페미니즘 혁명에 영향받은 여성, 특히 싱글과 고학력 여성의 정치참여 목소리가 강화되면서 여성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 우세는 불가피하다는 믿음

○ 인구학적 변화가 민주당에 유리할 수는 있지만 대선승리가 당연시할 수는 없음. 민주당 승리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 히스패닉계는 현재 공화당보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흑인처럼 압도적이지는 않음

- 가톨릭을 믿는 경향이 있는 히스패닉계는 문화적으로 전통적 태도. 또한 다른 인구집단보다 소득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흑인과는 다른 태도. 이미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W. 부시에 대한 지지가 증가
- 지식기반경제의 대도시 대졸 고소득 지식노동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자였던 고졸 저소득 제조업 블루칼라 노동자가 이탈
- 여성의 민주당 지지 경향도 이전처럼 크지는 않음.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고 테러와 범죄로부터 안전을 중시하는 기혼여성은 민주당에서 이탈, 공화당 투표

③ 언어의 신화

○ 민주당의 문제는 가치와 어젠다가 아니라 레토릭과 프레임이라는 주장. 선거승패는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주장

- 민주당을 말 못하거나 장사를 못하는 멍청한 당으로 묘사. 신념의 문제를 테크닉의 문제로 치환
- 당의 노선과 정책을 현대화하거나 국민의 신뢰를 얻는 정치인을 발굴하는 진짜 어려운 문제를 메시지를 잘 쓰거나 마케터를 고용하는 문제로 치환
- 집권 공화당의 치명적 실정을 이용하여 그럴듯한 말로 민주당은 권력을 주을 수도 있음. 그러나 민주당은 우연히 얻은 권력을 갖고 무엇을 할지 몰라 하던대로 할 것이고 뻔한 결과를 얻을 것임

○ 언어의 신화의 단순 버전은 대상 유권자 맞춤형 메시지를 잘 쓰면 된다는 생각

- 가령, 독실한 개신교 신자에게는 성경을 인용하거나 특정 이익집단에게는 그에 맞는 민원해결 약속을 하면 된다는 생각
- 문제는 진정성. 아무리 성경을 잘 인용하더라도 후보의 진정성이 의심받는다면 오히려 역효과
- 어젠더를 민원해결 공약들로 채우는 것은 실행가능성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상충하는 이런저런 이익집단 대상 공약들로 공약 자체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음

○ 언어의 신화의 정교한 버전은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의 프레임 이론, ‘코끼리는 생각 하지마.’

- 이슈를 공화당의 코끼리 프레임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나귀 프레임에 위치시키는 것에 초점. 민주당에 우호적인 연상을 일으켜 유권자를 설득하는 문구, 비유, 서사 강조

- 프레임 이론은 이슈의 유의미성이 서사와 스토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통찰 제공. 후보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중요
- 그러나 레토릭은 실체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후보의 어젠다가 가진 실체를 국민이 거부한다면 말장난이 통하지 않음
- 민주당에 불리한 맥락을 일체 공화당의 프레임으로 호도, 나아가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용기를 공화당의 프레임으로 호도. 닥치고 돌격, 혁신을 막는 핑계로 사용될 소지
-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혐오 시대에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메신저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면 민주당에 우호적인 프레임을 통하여 잘 전달된 메시지조차 국민은 신뢰하지 않음. 생활인은 본능적으로 말장난을 구별함

○ 문제는 ‘짜가지’

- 정치인과 유권자의 신뢰 관계는 정치의 기본. 문제는 ‘짜가지’. 인성 테스트(personality test)를 통과하지 못하는 정치인의 말은 유권자가 들으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정치인이 아님
- 유권자의 투표는 후보자의 캐릭터, 짜가지에 근거하는 개인적인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권자의 질문, 얼마나 짜가지가 있는지를 통과해야
 - 첫째, 후보가 힘 있는 사람(a person of strength)인가? 도전과 비판 속에서 핵심 신념을 갖고 이에 근거해 행동할 능력이 있는가?
 - 둘째, 후보는 진실한 사람(a person of integrity)인가? 시간이 지나도 일관성을 보여주고 진실을 말하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 후보는 공감할 줄 아는 사람(a person of empathy)인가? 우리와 같은 사람을 이해하고 걱정해주는가?
- 국가 리더십을 결정하는 대선에서 우유부단하고 계산적이고 냉혹한 엘리트 후보, 짜가지 없는 정치인은 자격 상실
 - “다른 사람이 듣기를 원하는 것만 말하는 후보는 힘을 보여줄 수 없다. 신념의 문제에서 입장을 바꾸는 후보는 진실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다. 보통 사람의 삶과 감정에서 멀리 떨어진 후보는 생활인이 직면한 일상의 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법을 신뢰할 수 있게 전달하지 못한다.”

○ 캐릭터 정치

- ‘캐릭터가 경험을 이긴다(characteristic trumps experience).’ 싸가지가 리더십 우위를 결정
- 민주당은 공화당과 달리 정치인의 개인 캐릭터, 후보의 싸가지를 무시하는 경향
- 2000년 대선에서 부시 캠페인은 앨 고어의 사소하고 부정확한 스토리를 과장, 인터넷을 발명했다는 고어의 말실수 등을 집중 유포, 민주당은 이를 무시. 스마트한 사람을 거만한 사람으로 낙인
- 2004년 대선에서 자칭 진실을 찾는 제대군인이라는 공화당 외곽조직이 베트남 전쟁에서 무공훈장을 받은 전쟁영웅 캐리의 캐릭터 공격. 민주당은 이를 무시. 베트남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은 부시가 리더십 이슈에서 우위에 서게 했음
- 공화당은 민주당 후보를 자기 자신의 마음도 모르는 ‘왔다갔다하는 사람 (flip-flopper)’으로 낙인. 정직성과 진실성이 대선 후보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유권자 집단이 압도적으로 부시 지지
- “부시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겼다. 나는 부시가 믿는 것을 거의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나는 부시가 무엇을 믿는지는 안다. 적어도 나는 부시가 어떤 것을 진짜 믿는 것을 안다. 적어도 나는 부시가 하려고 말하는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안다.”

④ 처방약의 신화

○ 처방약의 신화는 민주당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지 말고 민주당이 유리한 운동장에서 싸우자는 ‘운동장 바꾸기’

- 언어의 신화가 민주당에 우호적인 프레임에서 싸우자는 레토릭의 문제라면, 처방약의 신화는 민주당이 유리한 이슈에서 싸우자는 이슈 전환
- 안보이슈와 문화이슈와 같이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를 무시하고, 처방약으로 상징되는 건강보험 등,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환호하는 국내이슈와 복지이슈로 전환해야 승리 가능하다는 논리

○ 고정 지지층이 관심을 가지는 ‘진영 이슈’만이 아니라 부동층을 포함한 국가적 관심사인 ‘온 국민 이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대선승리 불가능

- 9.11 테러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결정적 상황변화, 미국의 당면 핵심 이슈인 안보이슈에 대해 민주당이 회피한다면 민주당의 강점, 처방약의 신화는 작동하지 않음
- 민주당이 국민적 관심사인 국가안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국내이슈에 대한 민주당의 소리를 유권자들은 듣지도 않을 것임
- 더욱이 민주당은 베트남 전쟁이후 '유약한 정당'이라는 이미지. 힘의 사용에 있어 단호했던 터프한 정당, '루스벨트와 트루먼과 케네디의 정당'이 아니라 베트남 전쟁에서 무력했고 이란 인질사건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도 무력했던 '카터의 정당'으로 나락

○ 국내이슈에 집중하자는 처방약의 신화는 문화이슈를 망각, 이익에만 초만을 맞추어 국민이 공감하는 가치이슈 무시, 정책 제안의 설득력 상실 초래

- 유권자는 민주당의 공약이 아무리 자신의 이익에 부합할지라도 캐릭터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불신. 굳건한 신념의 문제가 되어야 하는 이슈에서 자신의 입장을 수시로 변경하는 후보를 본능적으로 알아채고 불신
- 유권자는 보편적 상식과 동떨어진 도덕적 견해를 신봉하는, 싸가지 없는 후보가 아무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공약을 발표해도 용납하지 않음

○ 사회정의를 주창했고 도덕적 감수성에 예민했던 민주당이 대중적으로 '비도덕 정당'으로 전도

- 히피세대의 반문화를 적극 포용한 이래 민주당은 너무나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올바르고(politically correct),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권리, 책임과 동반되지 않는 권리에 신경 쓰는, 싸가지 없는 정당으로 인식
- 민주당의 진보 지지층은 보통사람과 다르다는 인식. 특히 도덕 표준과 전통적 가족 가치에서 부자정당인 공화당이 친숙한 보통사람의 정당, 민주당은 낯선 엘리트의 정당으로 인식

○ 민주당의 진보 지지층은 다르다

- 2004년 당시, 민주당의 진보 지지층은 더 젊고 더 교육을 많이 받고 더 잘살고 더 세속적임
- 진보층은 결혼을 덜 하고 자녀를 덜 갖는다. 이들은 교회에 가는 빈도가 다른 미국인의 반도 안 됨. 동성 결혼에 대해 진보층은 80%가 찬성하지만 미국인의 30%만이 찬성
- 진보층의 67%가 군사력의 선제사용이 정당하더라도 반대하는 반면, 전체 미국인은 35%만이 반대. 진보층의 65%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전체 미국인의 35%만이 찬성. 전체 국민의 2/3가 국기를 정기적으로 게양하지만 진보층은 2/5에 그침

4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1. 믿을 수 있는 변화¹³⁾

- 2008년 대선 구도는 ‘변화 대 현상유지(Change vs more of the same)’. 오바마의 캐치프레이즈는 양극화 정치를 끝내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변화(Change We Can Believe In)’
 - ‘믿을 수 있는 변화’는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지향. 보수일색 공화당에서 진보 일색 민주당으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양극화의 적대적 공생을 끝내겠다는 정치교체
 - 정치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뻔한 정권교체 슬로건은 정치불신을 넘어 정치를 혐오하는 다수의 부동층, 양당을 동시에 싫어하는 온건 무당파 유권자에게 오히려 역효과
 - ‘믿을 수 있는 변화’는 똑같은 구태정당 간의 정권교체로 정치불신만 심화, 변화는 없다는 다수 유권자의 냉소를 극복하고 양극화 정치의 교체를 목표로 하는 ‘진짜 변화’
- ‘믿을 수 있는 변화’는 좌우의 분열을 국민이 나서 바꾸려고 하는 절대다수 국민의 희망이고, ‘오바마 현상’은 이를 상징
 - “당신이 느끼는 것은 전국적으로 정치적 이행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좌우의 첨예한 분열(conservative-liberal sharp divisions)을 깨뜨리려고 한다.”
 - “매우 절대주의적인 우파의 분파가 있고 다른 쪽을 악마화하는 동일한 좌파의 분파가 있다. 그리고 중도에 80%의 국민이 있다.”
- 오바마는 공화당만큼 기성 민주당에도 비판적인 탈정당적 정치사상(post-partisan political thinking) 대변
 - ‘믿을 수 있는 변화’는 ‘민주당의 현대화’ 전제. “민주당은 비전과 메시지를 업데이트 하지 못했다. 우리가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
 -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은 힘든 선택을 요구하고, 공화당만큼이나 민주당도 낡은 사고방식과 과거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13) Obama for Change. *Change We Can Believe In: Barack Obama's Plan to Renew America's Promise*(Crown, 2008)

○ 오바마는 좌우 이분법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국민이 원하는 실용적인 상식적 해법 추구

- “이것이나 저것이나 공식들(either/or formulations)은 끔찍한 것이다. 이것들은 쓸모없다. 현실은 우리가 사고하는 정신적 범주를 넘어서나.”
- “나는 좌우 라벨(liberal-conservative labels)이 편안한 사람이 아니다. 국민이 찾고 싶은 상식적 해법이다.”
- “나에게 문제는 당신이 중도주의자인지 좌파주의자인지가 아니다. 나에게 문제는 당신이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작동하는지, 당신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동하는 연합을 구축할 수 있는지 이다. 그 제안이 작동할 수 있다면 당신이 중도주의 또는 보수주의 또는 좌파주의든지 그 제안을 지지한다.”

○ 오바마는 ‘담대한 희망’을 실천하는 ‘급진적 온건론자(radical moderate)’ 또는 ‘비전 있는 중도주의자(visionary centrist)’로 대선 승리

- 국민의 불신만 증폭해왔던 정치 양극화 속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온건론자를 조용한 다수, 생활인은 ‘급진적’으로 놀라워하고, 진영논리를 넘어 국민통합을 역설하는 중도주의자를 ‘비전 있는’ 리더로 신뢰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교조적 사고와 노골적인 당쟁을 벗어나 오직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천, 국가 혁신을 추진하는 상식적 해법

○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

- 좌우 극단의 시끄러운 소수, 활동가의 정치파괴와 이로 인한 조용한 다수, 생활인의 정치혐오의 상호증폭. 보통사람의 정치참여 저하와 주류정당의 극단화의 악순환. 오바마의 ‘담대한 희망’은 이 상호증폭과 악순환을 끝내는 ‘믿을 수 있는 변화’
- “(W. 부시 집권이후) 민주당은 반사이익정당(the party of reaction)이 되었다. ... 그러나 더 침예한 당파적, 이데올로기적 전략을 추구하려는 민주당의 어떠한 시도도 현재의 상황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나는 우리가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우리의 대의를 과장할 때마다 패배한다고 생각한다. 이데올로기적 순수성, 경직된 정설, 정치적 논쟁의 뻔한 예측성 때문에 한 국가로서 우리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양자택일의 사고에 빠지는 것이다. 국민을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교조적 사고와 노골적인 당쟁이다.”
-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광범한 다수, 즉 선의를 가진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가 국가혁신 프로젝트에 다시 함께 하는 것이다. ... 국민은 우파와 좌파, 보수와 진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도그마와 상식, 책임과 무책임, 지속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 간의 차이는 알고 있다.”¹⁴⁾

○ 오바마는 ‘뉴민주당원’, ‘성장친화적 민주당원’을 자임하면서 좌파도 우파도 아닌 새롭게 다른 길로 국가를 지도할 것을 약속

- “나는 언제나 신민주당이란 말을 좋아했다. 신민주당과 그 철학은 이 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교착상태를 넘어 새롭게 생각하려는 것이다.”
- 이런 맥락에서 구좌파가 클린턴을 ‘공화당 2중대(me-too Republican)’, ‘부자 민주당(Democrat for the Leisure Class)’으로 비판했던 것처럼 오바마를 ‘부시 2중대(Bush 2.0)’, ‘파괴적 중도(Destructive Center)’로 비판했던 것은 우연이 아님¹⁵⁾

2. 아메리칸드림¹⁶⁾

○ 오바마는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를 온국민의 꿈, 아메리칸드림의 실현으로 형상화했고, 2008년 대선을 양극화 정치에 대항, 아메리칸드림을 살릴 수 있는 기회로 규정

- 오바마는 “민주당은 기회와 아메리칸드림의 정당(the party of opportunity and the American Dream)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 아메리칸드림, 즉 희망에 근거한 ‘미국의 약속 혁신(Renewing America's Promise)’은 2008년 대선 미국 민주당 선거강령 제목
- “지난 8년 동안 우리 국민은 실패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나라이다. 미국 국민, 이 위대한 땅의 민주당원, 공화당원, 무당파 국민에게 말하고 싶다. 이번 선거가 21세기에 미국의 약속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기회이다.”
-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해 메케인의 ‘공포의 전략’과 대비, 오바마는 ‘희망의 전략’을 사용. “지금은 두려움과 공포의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결연하고 굳건한 리더십의 시기이다.”
- 이는 대공황에 맞선 루스벨트의 메시지와 유사.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14) Barack Obama. *The Audacity of Hope: Thoughts on Reclaiming the American Dream*(Crown Publishers, 2006)

15) Christopher Caldwell, "Obama: Radical Moderate"(*The Financial Times*, 2008.11.7.), Bruce Reed, "Yes, He is: Obama Calls Himself a New Democrat and Shows What It Means" (*The Slate*, 2009.3.11.), Edward Luce, "Left Decries Move towards Centre Ground"(*The Financial Times*, 2009.5.20.)

16) Barack Obama. "Transcript: Barack Obama's Acceptance Speech"(2008.8.28.), "RENEWING AMERICA'S PROMISE: 2008 Democratic Party Platform"(Democratic Party, 2008.8.25.)

- **아메리칸드림의 가치는 미국 민주당 제3의 길의 가치인 기회, 책임, 공동체를 계승**
 - 기회. “부와 영향력을 가장 많이 가진 소수에게만 기회를 줄게 아니라 일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에게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책임. “개인의 책임과 상호책임, 이것이 미국의 약속의 본질이다.”
 - 공동체.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전제, 그러나 잘 살고 못살 때도 한 배를 탄 하나의 국민이라는 전제, 내가 바로 내 형제자매의 보호자라는 이 근본적인 전제.”
- **오바마는 일관되게 아메리칸드림에 기초한 대통합 주장. “민주당의 미국과 공화당의 미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합중국만이 있을 뿐이다.”**
 - 오바마가 전국적 인물로 부상한 계기였고, 이라크전을 둘러싼 국론분열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2004년 대선,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에서도 대통합 주장
 - 테러와의 전쟁은 공화당의 필승카드이자 좌우파의 극단적 정치 양극화 이슈. 테러와의 전쟁 이슈를 좌우 진영의 분열이슈가 아니라 온국민 통합이슈로 전환. “전쟁터에서 싸우는 민주당의 미군과 공화당의 미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미합중국 군인만이 있을 뿐이다.”
 - 오바마는 공화당의 이슈를 회피하거나 베끼지 않으면서 ‘강하면서 동시에 영리한 (strong and smart)’ 중도적 해법 제시. 테러와의 전쟁 이슈에서 공화당의 우위를 무력화
 - 테러와의 전쟁의 주목표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테러주범, 오사마 빈 라덴과 알 퀴에다를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라크에서 책임있는 철군과 동시에 아프가니스탄으로 미군을 증원할 것을 주장
 - 좌파의 이라크전 반대와 우파의 테러와의 전쟁 승리를 동시에 만족, 나아가 공화당 정부가 지난 8년간 빈 라덴을 제거하지 못하는 책임을 묻는 공세적 입장으로 전환
- **오바마는 2012년 대선에서도 공화당의 51% 전략의 진보 버전인 99% 전략을 거부하고 희망에 초점을 맞춘 ‘100% 미국’의 전진(Forward) 메시지 채택**
 - 글로벌 금융위기의 대불황 여파가 지속되면서 우파의 ‘티파티(Tea Party) 운동’과 분노의 정서를 공유하는 좌파의 ‘점령하라 월 스트리트(Occupy Wall Street) 운동’의 99% 전략을 결코 수용하지 않았음
 - “우리는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더 강하다. 나는 이 나라가 모두가 공정한 몫을 얻고 모두가 공정한 부담을 지고, 모두가 동일한 규칙을 지킬 때 성공한다고 믿는다. 이는 민주당의 가치도 아니고 공화당의 가치도 아니다. 이는 1%의 가치도 아니고 99%의 가치도 아니다. 이는 미국의 가치다. 우리는 이를 다시 주장해야 한다.”¹⁷⁾

○ ‘분노’의 마이크로 타기팅, ‘희망’의 마이크로 타기팅¹⁸⁾

- 분노는 대안 없이 적대적 공생에 안주하거나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어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태생적으로 변화를 바라지 않는 보수적 세계관.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의 승리 공식은 변화를 ‘희망’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
- ‘W. 부시의 뇌’, 칼 로브(Karl Rove)를 위시한 보수진영의 마이크로 타기팅은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세분화, 분노 지점(anger point) 활성화, 보수진영 유권자 최대 동원, 정치 양극화 심화
- 칼 로브는 두 개의 미국, 50 대 50의 선거구도를 깨뜨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단, 1%만 더 이기면 된다는 ‘51% 전략’ 기안. “유권자의 중도는 붕괴되었다.”고 선언
- 보수진영의 고정지지층이 진보진영보다 더 크기 때문에 부동층에서 패배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전략적 발견. “이 나라에는 분노하는 보수주의자가 분노하는 진보주의자보다 2배 더 많다.”
- 51% 전략은 지지층 확대가 아니라 심화(deepen, not broaden)를 위한 네거티브 올인 전략. 투표행동을 이끌 수 있도록 지지층을 심화시키려면 유권자의 분노 지점을 활성화. “사람들은 대통령 W. 부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투표하지 않는다. 분노가 훨씬 더 강한 투표 동기이다.”
- “중도는 없다.” 자칭 무당파 유권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자신의 팀 옷을 입기를 원하지 않는 ‘숨겨진 정당지지층’. 따라서 무당파에 숨어있는 소극적 공화당 지지자들을 찾는 것이 중요
- 소극적 공화당 지지자를 찾기 위해 칼 로브는 최초로 마이크로 타기팅을 정치에 활용. 상업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유권자의 개별적 정보를 저장하는 거대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유권자 보관실(Voter Vault)’ 구축
- 칼 로브는 투표경향과 소비성향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소득수준, 인종, 학력, 지역 등의 변수가 아니라 소비성향이 투표예측에 더 정확하다는 것을 발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여러 소비성향의 정치적 선호 경향을 매칭, 유권자의 개별적 분노 지점을 찾아 맞춤형 선거운동
- 오바마는 진보진영의 마이크로 타기팅 도입, 유권자의 투표성향 세분화까지는 보수진영과 동일하지만 분노가 아니라 희망 지점(hope point) 활성화, 진보진영 유권자의 동원만이 아니라 중도 및 보수 유권자로 확장 최대화, ‘그래 할 수 있어(Yes we can)’라는 ‘희망의 전략’을 통해 온국민 동원. 온국민 동원은 정치 양극화를 끝내는 것이 대전제

- “희망은 맹목적 난관주의가 아니다. 희망은 우리의 길에 놓여있는 방해물 또는 임무의 엄청난 어려움을 망각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옆에서 방관하거나 싸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모든 반대 증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달성하고 노력하고 싸울 용기가 있다면 우리 앞에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희망은 우리를 위해 쓰인 운명은 없지만 우리가, 현재 상태에 안주하지 않고 마땅한 세계를 다시 만들고자 하는 용기를 가진 남성과 여성이 쓰는 운명에 대한 믿음이다.”
- 2004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100% 미국 전략’은 온건파와 보수파 유권자 집단에서 더 많이 지지율을 높였고, 오바마를 지지하는 공화당원, ‘오바마칸(Obamacan = Obama + Republican) 현상’까지 나타났음
- 2004년 대선과 비교하면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는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진보(3%)보다 온건(6%)과 보수(5%) 유권자에서 더 많이 지지율을 높였고, 따라서 민주당원에서는 2004년과 동일한 지지를 얻었지만 공화당원(3%)과 무당파(3%)에서 더 많이 지지를 높였음
- 민주당의 취약점인 종교에서 가톨릭(7%), 개신교(5%), 유대교(4%), 심지어 공화당의 표밭인 복음주의자(3%)와 매주 교회에 다니는 집단(4%)에서도 지지를 더 많이 얻었음. 그리고 2004년 대선에서 부시 지지자의 17%의 지지를 얻었음.

3. 문제는 중산층¹⁹⁾

○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 대선 출마. 중산층은 정치 양극화를 막을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정치·경제적 방파제

- 중산층 구제 계획(A Rescue Plan for the Middle-Class)은 아메리칸드림을 복원하려는 오바마의 핵심 공약. 아메리칸드림은 잘 살려는 중산층의 꿈과 중산층이 되고 싶은 서민의 꿈을 통합하는 온국민의 꿈

17) Barack Obama. "Remarks by the President on the Economy in Osawatomie, Kansas"(2011.12.6.)

18) Ronald Brownstein. *The Second Civil War: How Extreme Partisanship Has Paralyzed Washington and Polarized America*(Penguin Books, 2007), Nathaniel Persily(ed). *Solutions to Political Polarization in America*(Cambridge Univ. Press, 2015), Paul R. Abramson, John H. Aldrich and David W. Rohde. *Change and Continuity in the 2008 and 2010 Elections*(Congressional Quarterly, 2011)

19) James Carville, Stan Greenberg. *It's Middle Class, Stupid*(Penguin, 2012). Barack Obama. "A Rescue Plan for the Middle Class"(2008.8.13.), Stan Greenberg and James Carville. "A Path to Victory in a Tough Economy"(The Democracy Corps, 2012.9.4.)

○ 오바마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을 위해 하나의 국민으로 행동한다면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할 수 있다고 강조

- “우리가 지금 행동한다면 우리가 하나의 국민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에 책임과 책임감의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기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상식적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 “21세기에 번영을 복원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경제를 만들 기술과 혁신에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아메리칸드림에 모든 미국인에게 공정한 몫을 주는 공정성과 균형감을 복원할 수 있다.”

○ 오바마의 공약, ‘중산층 구제 계획’은 집권 후, ‘경기회복과 재투자 계획(Recovery and Reinvestment Plan)’으로 집행, 경제위기 극복

- 경제위기 극복 정책의 기본원칙은 좋은 아이디어를 우선하는 실용주의에 입각, 적시에(Timely), 적중하게(Targeted), 책임있게(Responsible) 집행
-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의 실질적인 테스트는 민주당의 아이디어인지 공화당의 아이디어인지가 아니라 ‘이 정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지’ 이다.”
- “이것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이 낡은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를 우선하고 협소한 당파성이 아니라 공통의 목적 정신을 우선하고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물려받을 나라에 무엇이 좋은가?’를 우선적으로 묻는 이유이다.”

○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의 ‘전진’ 선거운동의 키워드는 ‘문제는 중산층이야 바보야!(It's middle class, stupid!)’

- 아메리칸드림에 기초한 새로운 다수파 연합의 핵심은 ‘버림받은 중산층(smashed middle class)’. 중산층을 대변하는 진짜 리더십을 갈구하고 국민을 위한 전진
- “중산층의 조건과 미래를 해결하는 메시지, 가치, 프로그램을 통해 중산층을 재활성화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다.”

- ‘중산층의 기회와 미래’ 메시지를 전면화. 중산층을 다시 정치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반대만 일삼는 공화당을 ‘이것은 미국이 아니다’는 애국적 메시지로 공격함과 동시에 상향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중산층 공약과 결합
 - “미국의 힘은 언제나 상승하는 중산층에 기초해 있다. 근로와 책임은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중산층은 버림받았다. 오랫동안 국민의 실질소득은 오르지 못했고 경제위기는 국민을 벼랑으로 내몰았다. 중산층을 재건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중산층을 위해 교육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의료비용을 낮추고 사회보장을 튼튼히 하자. 공화당은 사회보장을 끝내려 한다. 갑부와 석유회사에 대한 증세에 반대한다. 이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인이 아메리칸드림을 믿고 성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5

‘새로운 회피의 정치’를 넘어서

1. 포퓰리즘의 위협²⁰⁾

- 트럼프 포퓰리즘이 미국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려 한다는 위기감. 특히 민주당의 위기감 고조. 미국 정치사에서 최초로 선출된 대통령 후보, 더욱이 재선도전 현직 대통령이 후보를 중도 사퇴한 것은 민주당의 위기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음
- 트럼프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노선 또는 좌우의 진영논리가 아니라 기성체제를 적으로 규정, 대중의 분노를 극대화, 반사이익을 노리는 포퓰리스트

○ 트럼프 포퓰리즘²¹⁾

- 트럼프의 포퓰리즘 스타일은 권위주의 가치와 결합한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
- 포퓰리즘은 ‘대중 대 엘리트(People vs Elite)’의 수직적 대결구도 극대화, 엘리트에 대한 분노의 정치를 고취하는 레토릭 스타일
- 포퓰리즘은 기성체제의 정통적 권위에 도전. 페이크 뉴스를 생산하는 주류 미디어와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조종을 받는 대의 민주주의 부정
-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도덕적 권위의 유일한 정통적 근원은 대중(people)이라고 주장. ‘대중은 옳고 통치 엘리트는 틀리다.’
- 권위주의는 ‘우리 대 그들(Us vs Them)’의 수평적 배제구도 극대화, 그들에 대한 공포의 정치를 고취하는 가치
- 권위주의는 불안정과 무질서의 위험에 대항해 안전의 중요성 신봉. 우리의 일자리를 훔치는 외국인, 우리의 여성을 공격하는 이민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등
- 관습적 전통을 유지하고 우리의 생활방식을 지켜주는 순응성의 가치 중시. ‘미국의 가치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자.’
- 집단과 풍습을 보호하는 강력한 리더에 대한 충성스런 복종 필수. ‘나 혼자만 이를 고칠 수 있다.’ ‘나를 믿어라,’ ‘당신은 내 팀이냐?’

20) 이진복. 「트럼프 현상: 정치의 종언」(민주연구원, 2016.10.24.), John B. Judis. *The Populist Explosion: How the Great Recession Transformed American and European Politics*(Columbia Global Reports, 2016), E. J. Dionne Jr. *Why the Right Went Wrong*(Simon & Schuster, 2016)

- 트럼프 포퓰리즘이 신우파 대체, 공화당 장악. '문제는 정부'라는 신우파의 정부실패론을 넘어 '문제는 정치'라는 정치실패. 정부실패의 대안이 시장만능이라면 정치실패의 대안은 트럼프 만능
 - 기성 엘리트의 정치실패로 인한 미국실패. 미국이 중국과의 글로벌 경쟁에서 지고 있다는 국가적 비관주의 고취
 -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전면화. 신보수가 1950년대 핵가족 시대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면 MAGA의 본질은 백인의 비주류화 공포 고취, 일방적 고립주의를 통해 '미국을 다시 백인국가로(Make America White Again)' 만들려는 포퓰리즘
 -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대전제. 트럼프는 금도를 지켜 대화와 타협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political correctness)'를 기성 정치 엘리트의 위선으로 공격
 - "정치인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all talk, no action). 좋게 들리지만 작동하지 않는다(sounds good, doesn't work)."
- 트럼프는 기존 정치 문법으로 해석 불가. 온갖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건재, 오히려 정치적 존재감 확대. 초박빙 대선 구도를 이끌면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
- 트럼프는 내란죄를 비롯, 성추문 등 총 91개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머그샷 굴욕을 받았음에도 공화당 대선후보로 압도적 재선출. 바이든의 중도사퇴를 이끌어내는 등, 미국 민주주의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이뤄냄
- 트럼프는 메시아를 찾는 대전환기의 아웃사이드 유권자, 특히 백인 남성 블루칼라 집단을 결집
- 유권자 개인의 위기의식이 국가적 위기의식과 결합. 유권자의 '무력감(powerlessness)'과 '소외감(voiceless)'은 연령, 인종, 학력, 소득 등의 기존 지표보다 트럼프 지지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
 -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집단, 정보화의 산업 구조조정과 세계화의 무역협정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위협받는 집단, 대규모 이민 유민과 리버럴한 대도시 문화의 확산으로 이질감을 느끼는 집단

21) Pippa Norris and Ronald Inglehart. *Cultural Backlash: Trump, Brexit, and Authoritarian Populism*(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

- 백인 남성 블루칼라 집단은 정치적으로 올바른 기성정치 엘리트가 자신의 정당한 분노를 억압하고 있다고 느끼는 아웃사이더 유권자
- 분노한 아웃사이더 유권자 집단은 정상적 정치인에게 볼 수 없는 비정상 트럼프의 막장과 기행을 ‘통쾌한 파격’으로 열광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대안적 사실’로 환호
- 백인 남성 블루칼라는 원래 뉴딜연합의 핵심,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 이들이 2016년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지역이었던 민주당의 벽, ‘블루월(Blue Wall)’, 5대호 연안의 러스트벨트 지역인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에서 패배하면서 트럼프 승리
- 지금도 백인 남성 블루칼라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는 철회되지 않고 있음. 여전히 블루월, 러스트벨트는 이번 대선의 승패를 결정하는 핵심 경합 주
- 민주당과 공화당의 총력전이 아무리 치열하더라도 서로가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는 초박빙 대선 상황. 트럼프가 아무리 실수하더라도 지지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유례없이 대선후보가 교체되어 카멜라가 등장해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요동치지 않고 있음

2. 새로운 회피의 신화²²⁾

- 1% 차로 대선 승패가 결정되는 50 대 50의 초박빙 정치구도가 지속, ‘두 개의 미국’이 고정되면서 트럼프의 부활을 자초하는 ‘새로운 회피의 정치(the new politics of evasion)’가 부활
- 미국 정치의 새로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부동층은 없다는 통념, 정치는 고정 지지층 동원이 전부라는 편견에 매몰
- ‘유색인의 신화(the myth of People of color)’, ‘경제결정론의 신화(the myth of economic determinism)’, ‘진보우세의 신화(the myth of progressive ascendancy)’라는 새로운 회피의 신화는 새로운 위안을 주면서 민주당의 혁신을 막는 동일한 보수적 효과

22) William Galston and Elaine Ciulla Kamarck. "The New Politics of Evasion: How Ignoring Swing Voters Could Reopen the Door for Donald Trump and Threaten American Democracy"(Progressive Policy Institute, 2022.2.)

○ **정당의 심층 분열(deeply divided)이라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에서 새로운 현상은 초박빙 분열(closely divided)**

- 신우파 연속 집권 시대를 끝낸 1992년 클린턴의 승리이후 어떤 당도 지속적 다수파를 형성하지 못함. 어떤 당도 3번 연속 집권 없이 다섯 번이나 정권교체
- 과거 9번의 선거를 보면 양대 정당 후보는 초박빙 대결. 민주당은 평균 51.2%, 공화당은 48.2%를 얻음
- 트럼프와 맞붙었던 두 번의 대선, 민주당이 아깝게 졌던 2016년 대선과 근소하게 이겼던 2020년 대선을 비교하면 2% 유권자가 결정적 역할. 힐러리는 일반투표에서 2.2% 포인트를 이겼지만 패배했고, 바이든은 4.4% 포인트 차로 승리
- 정당의 심층 분열 현상으로 진보와 보수 이념 유권자가 자기 정당으로 결집하는 대분류가 진행되어 전국적으로 경합지역이 줄어들고 있음
- 동시에 초박빙 분열 현상으로 매우 작은 부동층의 온건 무당파 유권자의 이동만으로도 대선 승패가 결정, 줄어들고 있는 경합지역의 부동층 유권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여전히 진보 유권자가 보수 유권자에 비해 적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부동층에서 더 많이 지지를 얻지 못하면 승리 불가능. 남아있는 경합 주(swing states)의 승패는 여전히 부동층이 결정
- “경합 선거(swing elections)가 규범이 됨에 따라 경합 주가 사라지고 있다. 경합 주의 부동층(swing voters in swing states)이 여전히 승리의 열쇠가 될 것이다.”

○ **지지층을 아무리 동원할지라도 민주당이 경합 주의 부동층으로 확장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대선 승리 불가능**

- 경합 주의 수가 과거 60년간 절반 이상 줄어들고 있지만 남아 있는 소수의 경합 주가 대선 결과 결정
- 민주당 지지층은 뉴욕으로 상징되는 대서양과 캘리포니아로 상징되는 태평양 연안의 대도시, 인구가 많은 소수의 주에 매우 집중. 여기서 민주당이 아무리 크게 이길지라도 승자독식의 선거인단 수를 증가시키지는 못함
-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에 패배했지만 2020년에 승리했던 5개 경합 주(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조지아, 아리조나)의 부동층이 승패 결정
- 이와 함께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모두 근소한 차로 이기거나 진 경합주도 중요. 2016년과 2020년에 민주당이 근소하게 이긴 경합 주(미네소타, 메인, 뉴햄프셔, 콜로라도, 뉴멕시코, 네바다), 2016년과 2020년에 민주당이 근소하게 진 경합 주(노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플로리다, 오하이오, 아이오와)의 부동층 향배 역시 중요

① 유색인의 신화

- 백인과 대비하여 유색인종은 흑인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신화. 따라서 흑인이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듯이 유색인이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믿음
 - 민주당은 흑인과 구별하여 히스패닉계를 비롯한 다른 유색인에 대한 접근방식을 혁신할 필요 없이 기존의 태도 고수
- 유색인이라는 단 하나의 범주로 매우 다양하고 독특한 민족 문화집단들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
 - 흑인과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의 정체성의 차이가 백인이 아니라는 동일성보다 더 중요. 무지개연합은 정체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
- 유색인은 미국 사회의 비주류이고, 따라서 민주당의 당연한 지지층이 된다는 그릇된 고정관념을 혁신해야
 - 특히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가 중산층으로 점차 계층상승에 성공,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민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 철회 가능
 - 히스패닉계가 21세기 이탈리아 이민자가 될 가능성. 후발 이민집단인 이탈리아계는 히스패닉계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가치 공유, 3세대에 걸쳐 미국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수가 공화당 지지자가 됨
 - 더욱이 현재 편견과 차별을 받고 있는 히스패닉계 이민자는 여전히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아프리카계 흑인과 결정적 차이. 히스패닉계는 처음부터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며 자유의지로 미국으로 이민
- 민주당이 미국의 주류가치, 아메리칸드림을 대변하는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유색인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음
 - 비주류를 대변하는 '하류 정당'이 아니라 주류로 상향이동하는 '상승 정당'으로 혁신할 때, 다수파 연합 구성 가능

② 경제결정론의 신화

- 경제는 언제나 문화를 이긴다는 신화. 경제이슈가 진짜 이슈이고, 문화이슈는 경제이슈를 숨기는 정치공학적인 전환이슈라는 믿음
 - 루스벨트의 뉴딜연합은 케인즈주의 수요측면 경제 패러다임에 입각,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현대 복지국가 건설, 물질적 이익을 기초로 중산층과 서민을 연합

- 민주당은 뉴딜연합의 관성에 안주, 선거공약은 정부가 얼마나 많이 지출하는 것인지, 공적자금 퍼주기가 공약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

○ “문제는 경제와 문화야(It’s values and the economy).” 경제이슈에서 승리하지 않고서는 민주당은 경쟁할 수조차 없고, 가치이슈에서 경쟁할 수 없다면 민주당은 승리할 수 없음²³⁾

- 미국 국민은 여전히 퍼주기 위주 경제정책을 지지하지 않고 있음. “진보주의자가 꿈꾸는 값비싼 정부주도 경제 어젠다를 미국인이 받아들이는 증거는 거의 없다.”
- 문화이슈는 자신들의 가장 깊은 확신을 반영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가치이슈
- 경제이슈는 종교, 총기, 배짱 등과 같은 문화이슈를 대한 견해를 결정하지 못함. 같은 잘못을 해도 위선자를 더 싫어하고, 지원을 해주더라도 필요성과 자격에 대한 상식의 문턱을 넘어야
- 서민이 공화당의 거짓 이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 팩트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서민무시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진보 엘리트의 계몽주의 시각은 서민이 부자위주 공화당을 지지하는 계급배반 투표만 심화
- ‘누구나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가치에 따라 행동한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 서민을 ‘경제적 동물’로 깔보는 진보 엘리트의 도덕적 우월감을 실생활 서민은 바로 느끼고 결코 지지하지 않음

③ 진보우세의 신화

○ 진보적 다수가 출현하고 있다는 신화. 민주당 지지 성향의 유색인이 다수가 되면서 동시에 문화 영역에서 ‘정치적으로 올바른 태도’를 체화한 유권자가 다수가 되고 있다는 믿음

- 정보화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와 함께 진보적인 문화적 태도가 자연스럽게 다수 미국인의 라이프스타일로 정착될 것이라는 믿음
- 민주당이 정보화와 4차 산업혁명을 대변, 과거 공화당의 고정 지지층이었던 대졸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
- 미국 경제를 책임지는 고소득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 확립. 박빙이었던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는 GDP의 64%를 차지하는 카운티에서 승리,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GDP의 71%를 차지하는 카운티에서 승리

23) Al From. "It's Values and the Economy"(The Blueprint. 2001.7.21.)

○ 진보우세의 신화는 보통사람의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고학력 진보좌파의 아이비리그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문화 거품’. 중도좌파 리버럴과 온건파를 소외시켜 대선승리 민주당 연합을 해체시킬 우려

- 진보성향 보다 보수가 많고, 보수 보다 훨씬 온건이 많은 전체 유권자 구성의 통계적 사실은 불변
- 이념 성향이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 진보우세는 정당의 정치 양극화와 동시에 심화되는 정치적 지리 양극화의 결과로 인한 착시
- 대서양과 태평양 연안의 코스모폴리탄 대도시 뉴욕·보스턴과 엘에이·샌프란시스코, 민주당 초강세 지역에 집중 거주하는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복음주의 기독교신자, 낙태반대론자, 평생 공화당원들과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 우세의 신화를 자연스럽게 신봉, 전도
- 더욱이 이들은 대체로 고소득 대졸자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자연스런 지지자였지만 지금은 이탈한 저소득 고졸 유권자, 특히 백인 비대졸 유권자(white non-college voters)의 일상경험과 문화태도, 나아가 미국의 문화적 주류와 격리되어 있음
- 온건 무당파 유권자가 결정하는 경합 주, 대선 승패를 결정하는 경합 주의 민주당이 아니라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본선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내 예비선거가 최대 관심사인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의 정치성향 반영
- 자칭 민주사회주의자는 예비경선의 경쟁자인 민주당내의 온건파와 중도좌파 리버럴을 적으로 간주, 전국적으로 축출하려는 민주당판 문화대혁명의 홍위병 역할, 민주당의 다수파 연합을 해체

1. 자유²⁴⁾

- 해리스는 2024년 대선을 “미국의 미래를 위한 싸움”으로 “어떤 한 당 또는 분파의 구성원이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새로운 전진의 길(new way forward)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규정
 - “과거의 비통합, 냉소주의, 분열적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희귀한 기회”
 - “도널드 트럼프는 심각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은 극도로 심각한 결과”
- 해리스는 선거송을 비윤세의 자유로 하는 등, ‘자유’ 메시지 전면화, 트럼프 포퓰리즘에 대항하여 진보와 보수, 민주당과 공화당의 양극화 정치를 넘어서는 대연합 추구
 - 트럼프의 승리는 미국 민주주의의 정수, 미국의 문화적 DNA인 ‘자유’에 대한 위협
 - 해리스는 초당파(country over party) 정부 약속. 공화당 인사의 장관 기용과 여야 합동 대통령 자문위원회 구성 약속
 - 공화당 정통보수 세력은 트럼프 반대 경향, 해리스를 지지하기 까지 함. W. 부시 전 대통령 등은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고 있고, 부시를 비롯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메케인, 롬니의 참모 수백명이 해리스 지지 선언
 - 해리스는 “많은 근본적 자유가 걸려있는 선거”로 이번 대선 규정. “우리 학교, 공동체, 예배장소에서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유, 당신이 공개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오염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을 열어줄 자유, 투표할 자유.”

24) Elaine Kamarck and William A. Galston. "Freedom: Harris's Message to America"(The Brookings, 2024.8.23.), Katherine Fung. "How Kamala Harris Stole Back 'Freedom' From the GOP"(The Newsweek, 2024.8.23.)

○ ‘자유’는 미국의 본질적 가치일 뿐 아니라 루스벨트 대통령 이래 민주당 리버럴리즘의 본질적 가치

-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1년 연두교서에서 연설과 표현의 자유, 경배의 자유,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등 네 가지 자유 호소, 연합국의 2차대전 목표와 전후 유엔의 보편적 인권선언으로 공식화
-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4년 연두교서에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복지국가의 필요성 제기. “빈곤한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다. 배고프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독재가 만들어지는 재료이다.”
- 한 세대 이후 미국 민권운동의 자유, 즉 인종차별의 압제와 불평등 시민권으로부터의 자유를 민주당이 포용
-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신우파가 시장 자유를 전면화하고, 공화당과의 차별화에 집착한 리버럴 원리주의가 민주당을 장악하면서 자유의 가치를 공화당에게 빼앗김
- 2022년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원 판사들로 인해 낙태권의 헌법적 권리 부정. 여성의 자유가 크게 위축, 자유가 미국 전체의 이슈로 급부상
- 해리스는 자유의 가치를 현실로 만든 “민권운동의 이상에 몰두하면서 성장했다”고 자부

○ 왈츠 부통령 후보 또한 이번 대선의 테마를 ‘자유’로 규정하고 공화당의 자유와 민주당의 자유를 구분, 민주당이 자유의 가치를 장악할 것을 강조

- “공화당이 자유라는 말을 할 때, 자유는 정부가 당신의 의사 진료실에 침입할 자유를 의미한다. 기업이 당신의 공기와 물을 오염시킬 자유를 의미한다. 은행이 고객을 속일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 “민주당이 자유에 대해 말할 때, 자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생활을 할 자유를 의미한다. 당신 자신의 의료를 결정할 자유를 의미한다. 당신의 아이가 교실에서 총에 맞아 죽는 걱정 없이 학교에 갈 자유를 의미한다.”
- “카멜라 해리스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를 위해 일어나 싸우려 한다. 자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원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해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⁵⁾

25) Tim Walz. "Tim Walz's Full Speech at the 2024 DNC"(2024.8.22.)

2. 중산층²⁶⁾

- 해리스는 이번 대선에서 중산층을 기준으로 ‘새로운 전진의 길’과 트럼프의 ‘넓은 후퇴의 길’을 구분하고 선택할 것을 제시
 - ‘새로운 전진의 길’은 미국 중산층을 성장시켜 미국 경제를 강하게 하는 중산층 강국의 길. “강력하고 성장하는 중산층을 가진 미래로 전진”
 - 트럼프를 과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미국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비판. “트럼프는 단지 본인과 자신과 같은 사람, 즉 가장 부유한 미국인의 삶을 더 좋게 만들려는데만 관심 있다.”
- 중산층 강국의 길은 중산층 출신인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려는 목적이자 자연스러운 신념
 - “우리는 강력한 중산층이 언제나 미국의 성공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건설은 나의 대통령을 정의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 “중산층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친숙하다. 나는 중산층 출신이다.”
- 중산층 강국의 길은 공화당 대 민주당의 정치나 보수 대 진보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식 대 몰상식의 선택
 - “중산층 강화는 정치가 아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나의 관점에서 이는 단지 상식이다. 이는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중산층이 강할 때, 미국은 강하고 우리는 더 강한 중산층과 미국 경제를 만들 수 있다.”
- 중산층 강국의 길은 루스벨트의 대담하고 지속적인 실험(bold, persistent experimentation)을 계승한 실용주의
 - “나는 약속한다. 나의 접근방식은 실용적이 될 것이다. 나는 루스벨트가 대담하고 지속적인 실험이라 부른 것을 할 것이다. 우리가 이데올로기에 구속되어서는 안 되고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 “당장의 위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큰 목적에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최선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실용적이 되는 것은 그 아이디어들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든 좋은 아이디어를 취하는 것이다.”

26) Kamala Harris and Tim Walz. "A New Way Forward for the Middle Class"(2024.9.25.)

3. 기회의 경제²⁷⁾

- 해리스는 미국의 자유를 지키는 중산층 강국의 길을 실현할 비전으로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제안
 - 해리스는 기회의 경제에서 삶의 영위를 위한 경쟁만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기회 강조. “누구든지, 어디서 시작했는지 무관하게, 모두가 경쟁할 기회와 성공할 기회를 가지는 기회의 경제를 창조할 것이다.”
 - 계속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함으로써 약육강식의 제로섬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경제 강조. “모두가 경쟁할 기회를 가지고 누군가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 기회의 경제”
 - 기회의 경제는 밑에서부터 상승하고(Bottom Up), 중간에서 확장(Middle Out)하는 중산층 중심 경제성장이라는 바이든의 대선공약을 해리스의 경제비전으로 업그레이드
- 기회의 경제는 모두가 일자리를 갖는 것을 기본으로 시작하여 재산을 모을 수 있는 성공의 비전
 - “나는 나의 비전을 기회의 경제라고 부른다. 이는 모두가 일자리를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일자리를 갖는 것은 우리의 야심과 포부에서 기본이 되어야 한다.”
 - “나는 미국인과 가족이 삶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이 재산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한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손자들을 위한 세대간 상속 재산을 모을 수 있기를 원한다.”
- 해리스는 마르크스주의자라는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 비전을 신념으로 표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는 자본주의자임을 공개적으로 선언
 - “나는 자본주의자(capitalist)이다. 나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믿는다. 나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일관되고 투명한 규칙을 믿는다.”
 - “나는 내 전체 경력에서 기업가와 기업 소유자와 함께 일해 왔다. 그리고 나는 기업이 규칙을 지키고 노동자와 노조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27) Kamala Harris. "Economic Vision Speech in Pittsburgh"(2024.9.26.)

○ 해리스는 기회의 경제를 실현할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정부와 시장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 파트너십 강조

- “나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극적 파트너십이 경제적 기회를 완전히 실현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의 하나라고 믿는다. 이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것이다.”
- “나는 기회에 대한 주요 장벽을 찾아서 제거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인이 집을 사고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을 돕는 상식적 해법을 찾아 이를 채택할 것이다.”

○ 기회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산업역량에 투자해야 하고, 이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는 미국의 경제 전통임을 강조

- “미국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주제는 우리의 산업역량에 투자하는 의도적 노력을 할 때, 몇 년간이 아니라 수세대동안 특별한 번영과 안정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 “신생국 미국의 제조업 역량을 만드는 해안을 갖고 있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을 생각해 보라. 대륙철도를 만들었던 링컨을 생각해 보라. 연방고속도로를 만들었던 아이젠하워를 생각해 보라. 미국이 우주경쟁에서 승리하고 우리 사회의 혁신을 촉진했던 케네디를 생각해 보라.”

○ 해리스는 최첨단 산업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차지하고 이를 위한 기업가정신(enterprising spirit) 강조

- “나는 다음 세기를 정의할 부문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차지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바이오산업과 항공우주에 계속 투자할 것이다.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 블록체인과 기타 신기술을 계속 선도할 것이다. 청정에너지 혁신과 제조업에서 더욱 격차를 늘려 첨단 배터리와 지열, 첨단 원자력을 발명할 뿐 아니라 미국 노동자가 미국에서 만들도록 할 것이다.”
- “나는 우리가 성공하는 근원이 미국인의 창의력, 역동성, 기업가정신이라고 믿는다. 우리의 기업가정신이 언제나 우리의 낙관주의의 근원이 되게 하자.”

○ 기회의 정치(The Politics of Opportunity)²⁸⁾

- 해리스의 '기회의 경제'는 중산층의 '기회의 정치'를 강조하는 미국 민주당의 제3의 길 전통 계승
- 중산층 유권자들이 진보적 경제 메시지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
 - 비관주의. 민주당의 비관주의는 리더십과 비전이 아닌 수동성과 무력함을 의미
 -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는 믿음. 국가 쇠퇴의 메시지는 중산층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원동력과 방안을 없애버림
 - 개인의 기회보다 안전을 강조. 민주당은 성공을 향한 개인적 열망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음
- 메시지: 중산층 기회의 새로운 시대(A New Era of Middle-Class Opportunity)
 - '새로운 시대'는 '낡은 체제에 대한 비판과 우리가 사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
 - '중산층'은 민주당의 타기팅 유권자. 더 잘 살려는 중산층과 중산층이 되고자 하는 서민
 - '기회'는 중산층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강력한 경제, 중산층의 개인적 경제 열망 장려, 개인이 기회를 추구할 자유를 가지도록 경제 불안전의 위기관리를 의미
- 핵심은 '기회의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고, 이는 '성공과 재정적 독립에 대한 중산층의 열망에 호소'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중산층의 경제적 기회와 이동을 창출하는 정책 틀'을 창안하는 것임

28) Anne Kim. "The Politics of Opportunity: The Case for a New Middle Class Economic Message"(The Third Way, 2006.5.4.)

미국 민주당은 무엇을 혁신했는가?

- ‘신화의 정치’를 넘어서 -